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8, Vol. 5, No. 2, 159-173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송 원 영† 리 난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국 내 중국인 한족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유학 초기의 심리적 적응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도시의 4년제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 중 입국한지 1개월 미만의 대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Berry(1989)의 모형에 따라 문화적응 유형(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을 구분하였고, 이들의 우울(BDI), 불안(STAI), 외로움(UCLA 우울척도), 자존감(Rosenberg 자존감척도) 및 행복감(MUNSH)이 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동화 유형의 외로움과 불안이 낮았고, 행복감이 높아서 이들의 적응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주변화 유형은 전반적으로 가장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였다. 동화 유형의 심리적 적응상태가 좋았다는 결과는 통합유형이 가장 적응적이라는 이전의 가설과는 차이가 있었고, 그 원인의 하나로 유학의 매우 초기(1개월 미만)의 특성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주변화 전략을 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기타 결과의 의미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였고 종단적 연구 등 후속연구의 필요성 및 가능한 주제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중국 유학생, 문화적응, 심리적 적응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ur) :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
E-mail : 1058@paran.com

우리나라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증가하여 1970년에는 321명, 2000년에는 3,963명이었다가 불과 6년만인 2006년에는 32,557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Study in Korea Project, 교육인적자원부)와 한류 열풍 및 경제성장 모범국의 이미지 등의 영향으로 파악되며, 당분간 그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학생의 출신 국가를 2006년 통계로 살펴보면 중국출신의 학생들이 61.7%인 20,080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2위인 일본(3,712명, 11.4%)나 3위인 미국(1.468명, 4.5%)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각 대학들도 입학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 국제화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우수 연구 인력 확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2002년에 이미 58,750명의 중국유학생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KAIE 정기총회, 2003).

유학생들은 익숙했던 자신의 환경에서 떠나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므로 당연히 여러 가지 적응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언어의 문제, 학비 및 재정문제, 사회적 적응문제, 고국에 대한 향수, 다양한 역할에서의 갈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에 이어 정서적인 어려움들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Mallinckrodt & Leong, 1992). Tseng(2002)은 미국에 유학중인 학생들의 적응문제는 크게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는 생활문제로서 즉, 음식, 생활환경, 교통, 기후, 경제와 보건문제 등이고, 둘째는 학업문제로서 영어실력, 미국의 교육체제에 대한 무지, 효율적인 학습방법 등이며, 셋째는 사회문화적 문제로서 문화충격, 문화적 피로, 차별, 규칙과 규율 등이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적응문제로서 향수병, 외로움, 우울, 고립, 좌절, 정체성 상실과 같은 것들이다. 이 중 초기에는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이 연구되었지만 사회문화적 문제나 심리적 적응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도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Mori, 2000; Sandu, 2005; Ward, 2001). 아시아계의 유학생들이 북미나 호주 등의 영어 문화권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에 접하게 되는 문화적 차이로는 집단주의적 의식, 간접적 문제해결방식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호주 대학교에 재학중인 중국인 학생들의 경우 이들의 문화적 스트레스와 의사소통 능력은 지각된 학업의 진전과 관련이 있었으며, 사회망의 연결과 생활의 균형은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이, 우울, 불안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Thomson, Rosental, & Russel, 2006). 한편 Kashima와 Loh (2006)은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외 유학생들의 적응은 거주국 학생 뿐 아니라 본국과 거주국이 아닌 제 3의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과의 어울림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히면서 보다 '국제적'이 될수록 적응도가 높아짐을 설명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많은 연구자들이 유학생의 스트레스에 완충작용을 해 주는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최재영, 신준섭, 1997; Kashima & Loh, 2006; Lee, Koeske, & Sales, 2004; Thomson, Rosental & Russel, 2006). 최재영과 신준섭(1997)은 재미 아시아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혼자들이 미혼자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Li와 Gasser(2005)는 미국으로 유학한 아시아 유학생들의 경우 문화간 자기 효능감(cross-cultural self-efficacy)을 상정하였고, 이는 거주국 문화와의 접촉(host contact)을 매개로 사

회문화적 적응을 향상시킨다는 모델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족, 배우자, 같은 나라의 국민, 거주국의 국민, 자국도 거주국도 아닌 다른 나라의 유학생 등 대부분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유학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는데(Kashima & Loh, 2006),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민 및 가족에게서는 정서적 지지를, 거주국민에게서는 어학 등의 도구적 지지를 얻는 등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동양권 학생의 서양 유학 뿐 아니라 같은 아시아권 내에서의 유학도 증가하여 중국학생들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먼저 유학을 시작하였다. 일본에 유학하는 중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스트레스 유형을 요인분석 한 결과 대인관계의 문제, 학업적 문제, 건강 및 생활문제, 재정적 불안, 환경문제 등이 주로 나타났고 특히 대인관계와 학업적 문제가 다른 모든 스트레스들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Jou & Fukada, 1996). 한국과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까운 나라이지만 최근 Galchenko와 Vijver(2007)이 유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지각된 문화적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그 거리가 클수록 심리적인 문제가 증가하고 사회문화적 적응은 저하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을 참고하면 중국 학생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보다 적응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 적응 특성에 대해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선구적인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이 독특하게 겪는 어려움은 가장 큰 것이 공부의 중압감이었고, 다음으로 재정의 어려움, 친구의 따돌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엄혜경, 2003). 또한 문화적인 스트레스로는 음주문화, 외국인에 대한 편견, 학습문화 등의 문화적인 차이에서의 곤란 등이, 필요한 도움으로는 친구를 사귀는 것과 한국어 습득 및 정착과정(숙박 등)의 어려움이 언급되었다(엄혜경, 2003). 그러나 한편으로 주목할 점은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 학생들 모두가 적응문제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들의 전반적 적응문제는 보통 수준이라는 점이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허춘영, 1999; 김재우, 2005; 장혁심, 2005). 즉, 유학생이라 해서 모두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유학생들을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 단 장혁심(2005)의 연구에서는 한족에 비해 조선족 유학생의 스트레스가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서 재한 중국인 중에 한족과 조선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지적한다. 이는 허춘영(1999) 역시 스트레스의 양상이 한족의 경우는 사회로부터의 격리, 고독감, 친구없음, 음식습관 차이, 한국에 대한 실망, 성적 억압, 기후, 한국어 능력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조선족의 경우는 생활비, 영어능력, 대인관계, 한국에 대한 실망, 자신감 상실, 인간관계, 성적 억압, 종교적 갈등, 학업문제, 견강문제, 유학동기 등의 문제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한 것과 일치하는 맥락이다. 김재우(2005)의 경우는 중국 학생들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한국인이 그들에게 갖는 편견에 대한 지각이 달라진다는 보고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문화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중국문화도 포기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분리(separation) 유형의 학생들의 다른 유형의 학생들보다 편견에 대한 지각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학생 전체를 부적응자로 파악하기보

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부적응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이론 및 경험적 맥락을 통해 발견하고 개입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부적응하게 되는 유학생들은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의 심리적 장애 뿐 아니라 학업 포기, 음주, 식이장애 등의 생활의 문제까지도 보이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파악과 대처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Davis & Katzman, 1999; Poyrazli & Lopez, 2007; Thomson, Rosenthal, & Russel 2006). 2007년 '버지니아대 총격사건'으로 알려진 조OO 역시 단기 유학생은 아니었으나 대학에 소속된 소수민족 학생으로서 학교 내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이후 일부에서는 대학 상담소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듯이(한국일보 Koreatimes, 07.4.21), 소수민족 또는 유학생들에 대한 적응은 그들이 속해있는 기관인 대학과 사회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질적인 문화에 접하는 사람들은 그 문화에 접촉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몇몇 집단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를 나누는 요소는 이동성(mobility), 자발성(voluntariness), 영속성(permanence)으로서 이동성은 자신이 옮겨간 사람인지 옮겨온 사람을 받는 사람인가의 여부이고, 자발성은 문화적 이동이 자발적이었는지 상황의 압력 때문이었는지의 여부이며, 영속성은 얼마나 오래 새로운 문화 환경에 살게 될지의 여부이다(Berry & Sam, 1997). 이에 따르면 유학생은 이동성 차원에서는 새로운 문화로 옮겨간 사람이고, 자발성 차원에서는 자발적인 이동이며, 영속성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된다는 점에서 이민자나 난민, 토착민 보다는 부담이 적고 관광객보다는 많은 부담을 갖는 정도의 상대적 위치를 갖고 문화에 적응하게 되는 정도의 상황에 있다.

이 때 언급되는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초기 사회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Redfield, Linton, & Herskovites, 1936, 정진경과 양계민(2004)에서 재인용). 문화적응의 상태를 범주화화여 모델로 제시한 Berry(1989, 2005)에 따르면 문화적응은 '자국문화 유지/포기'와 '주류문화 수용/거부'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지며, 이를 다시 조합하면 통합(integration, 자국문화 유지, 주류문화 수용), 동화(assimilation, 자국문화 포기, 주류문화 수용), 분리(separation, 자국문화 유지, 주류문화 거부), 주변화(marginalization, 자국문화 포기, 주류문화 거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대개 통합의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적응은 우수한 것에 반해 방어적인 태도로 자국과 거주국 모두에서 소외되는 주변화 전략을 택하게 되는 사람들의 적응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김재우(2005)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유형과 지각된 차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분리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차별을 가장 많이

표 1. 문화적응 전략의 분류

차원 1		자국문화 (본국 문화)	
차원 2		유지	포기
주류문화 (거주국 문화)	수용	통합 (integration)	동화 (assimilation)
	거부	분리 (separ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느끼고, 동화유형은 차별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것이 같은 상황에서도 문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Zheng, Sang과 Wang (2003)은 호주에 거주중인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과 주관적 행복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자국문화 유지와 타국문화 수용이 모두 높은 주관적 행복과 상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세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문화 적응의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대개 자국의 문화 유지와 타국의 문화 모두 수용이 모두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두 문화를 모두 배척하고 고립되는 주변화 전략을 택하는 사람들이 고위험군(high risk)이라 하겠다.

앞서 설명했듯이 다른 문화권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다. 스트레스 사건과 그에 대한 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스트레스에 관한 초기 연구자인 Selye는 스트레스와 신체질환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일반적응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이라는 적응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경보반응(alarm)단계로서 신체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항(resistance) 단계로서 나름대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며, 세 번째는 소진(exhaustion)단계로서 적응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말한다.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유학생들의 적응과정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한국에 유학온 중국학생들을 조사한 허춘영(1999)의 경우 거주기간은 주관적 행복과 의미있는 상관이 있다는 보고를 하였고 Zheng, Sang과 Wang (2003)은 아시아 유학생들의 호주 거주기간이 주관적 행복과 상관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는 유학 초기에 행복감이 저하되었다가 점차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문화적응의 과정을 거쳐내는 것은 개인의 행복감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Ward & Kennedy, 1996; Zheng, & Berry, 1991. 정진경과 양계민(2004)에서 재인용) 뉴질랜드에 도착한 말레이시아 인들과 싱가포르 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도착 1개월 시점에서 우울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뉴질랜드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 사람들은 도착 2개월 시점에서 우울증이 높았다. Zheng과 Berry(1991)의 연구에서는 중국을 떠난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도착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초기 1~4개월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최고조에 달하므로 초기 적응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의 접촉이라는 스트레스에서 적절한 평가와 대처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중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유능성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주변화와 같은 방어적이고도 부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일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력이 상실되면서 소진단계로 접어들어 결국 부적응한 상태로 진행되고 말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중국 학생들

의 한국대학에서의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적응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초기 적응에 관심을 두고 문화적응 유형이 초기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합적인 유형을 가진 학생들의 적응은 동화나 분리의 유형보다 나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주변화 유형의 학생들의 적응이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국내 4년제 A대학에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 116명으로 남자 66명, 여자 50명이며 평균 연령은 20.2세(*SD*=1.6)였다. 모두가 학기 시작에 맞추어 입국하였으며, 입국 1개월 이내에 모든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래 조사에는 한족 이외에 조선족, 쿠르드족 등이 12명 있었으나 소수민족으로서 한국어에 대한 경험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제외하였고, 본 연구에 분석된 116명은 모두 한족이었다. 지인이 있었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숙사는 한국인 학생들과 섞여서 4인 1실로 배정하도록 되어있다.

측정 도구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재우(2005)가 문화적응전략을 중국어 번역본으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과 김동직(2002)이 개발한 문화적응 전략척도에서 10문항 허춘영, 김광일(1997)의 연구에서 5문항을 발췌하고 나머지 5문항을 예비조사를 통해 제작한 것이다. 한국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성 10문항(예, 한국에서 경험한 새로운 생활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과 중국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 10문항(예, 나는 중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한국에서도 유지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한다)의 2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문화 수용척도의 신뢰도는 .80으로, 중국문화 유지 척도의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 수용이 .65, 중국문화 유지가 .75로 나타났다.

벡 우울척도(BDI)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의 진술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0~63점이다. 張雨新, 王燕과 錢名怡(1990)이 중국에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태불안척도(STAI)

Spielberger(1970)가 제작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汪向東(1993)이 중국에서 번역한 척도를 사용

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높게 나타났다.

UCLA 외로움 척도

Russel, Peplau와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20~80점이다. 龔耀先과 劉協和(1992)가 중국에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중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0점에서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진 10개의 문항으로서 총점범위는 0~30점이다. 季益富과 于欣(1993)이 중국에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행복감 척도(MUNSH)

Kozma와 Stones(1980)가 개발한 행복감 척도(MUNSH,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를 사용하였다. 허춘영(1998)이 중국 유학생의 정신건강 비교를 위해 중국에서 번역된 척도를 사용했고,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6으로 수용할만 하였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담당교수의 양해를 얻어 중국인 유학생의 입학 첫 학기 한국어 수업시간에 7개의 반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중국인(한족)인 공동연구자가 각 반마다 연구의 취지와 설문조사에의 협조사항을 이야기한 후 연구자들이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다. 분석은 주요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이후 문화적응 척도의 점수에 따라 중앙치를 중심으로 네 집단(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을 구분하여 각 집단에 따라 심리적 적응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김재우(2005) 역시 중앙치를 중심으로 집단 구분을 하였으며,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중앙치와 평균의 차이가 미미하여 평균으로 분리해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종속변인간의 상관이 높음을 고려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의미있는 변인들에 대해서는 단변량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 15.0이 사용되었다.

결 과

집단의 구분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문화적응 척도의 소척도인 한국문화 수용과 중국문화 유지 척도의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상하 집단을 구분하였다. 한국문화 수용이 평균이상인 사람 63명 중 중국문화 유지도 평균 이상인 경우는 '통합'집단으로 포함시켰고, 37명이 이에 해당되었다. 한국문화 수용이 평균이상이나 중국문화 유지는 평균 이하인 경우는 '동화'집단으로 포함시켰고, 26명이 이에 해당되었다. 한국문화 수용이 평균 이하인 사람 53명 중 중국문화 유지가 평균 이상인 사람은 '분리'집단으로 포함하였고, 20명이었으

표 2. 문화적응 유형의 구분

구 분		통합(n=37)	동화(n=26)	분리(n=20)	주변화(n=33)	전 체
한국문화 수용		32.73(2.32)	32.08(1.57)	26.89(1.83)	26.97(2.25)	29.94(3.37)
중국문화 유지		32.80(2.18)	27.00(2.17)	31.21(2.28)	27.01(2.46)	29.58(3.57)
성별	남(명)	15	20	12	19	66
	여(명)	18	6	8	18	50
나이(세)		20.35(1.57)	20.15(1.61)	19.70(1.59)	20.09(1.53)	20.12(1.57)

( )안은 표준편차

며, 한국문화 수용과 중국문화 유지가 모두 평균 이하인 사람은 '주변화'집단으로 33명이 이에 해당되었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에 각 집단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나이와 한국인 친구의 수 및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각각의 상관을 제시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나이는 외로움과 정적인 상관이, 한국인 친구의 수는 외로움, 불안과는 부적인 상관, 행복감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독립변인에서는 중국문화를 유지하는 경향과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경향 간에도 상관이 있었다. 통합과 주변화의 적응유형이 동화 및 분리의 유형보다 많은 것은 이런 정적인 상관분포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중국문화의 유지는 행복감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한국문화의 수용은 모든 정서

표 3.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 나이	-								
2. 한국인 친구 수	.118	-							
3. 중국문화 유지	-.015	-.157	-						
4. 한국문화 수용	.049	.021	.326***	-					
5. 우울	.049	-.112	.161	-.253**	-				
6. 외로움	.190*	-.231*	.018	-.277**	.425***	-			
7. 불안	.126	-.215*	.087	-.367***	.557***	.601***	-		
8. 자존감	-.067	.106	.038	.258**	-.288**	-.297**	-.320**	-	
9. 행복감	-.180	.277**	-.190*	.286**	-.587***	-.566***	-.731***	.325***	-

*p<.05, **p<.01, ***p<.001

적 적응지표와 높은 상관이 있었다.

특히 살펴볼 점은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모두가 유의미한 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은 종속변인들 간의 관계를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도록 다변량 분석(MANOVA)을 통해 진행한다.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단변량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4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심리적 적응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Wilk's Lambda=.787, p<.05). 우울감은 동화유형에서 가장 낮고 분리유형에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F(3, 112)=2.32, p<.10). 외로움과 불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사후검증을 살펴보면 동화 유형에서 점수가 가장 낮아서 적응적인 유형으로 나타난 반면, 주변화 유형은 외로움과 불안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분리유형도 불안에서는 동화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자존감은 동화유형이 가장 높고 분리유형이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행복감에서는 동화유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분리유형이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고, 이 두 유형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3, 112)=4.39, p<.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입국 1개월 미만의 중국인 한족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응 유형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유학 초기에 유학생들은 한국문화를 수용할수록 우울과 외로움,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적게 느꼈고, 자존감과 행복감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중국문화를 포기하는 동화 유형에서 외로움과 불안이 적었고, 행복감은 높게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우선 나이가 많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나 타지생활의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것에는 어린 나이가 유리함이 드러났다. 한국문화 수용과 중국문화 유지에서 유의한 상관이 드러난 것은 흥

표 4.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

구 분	통합 (n=37)	동화 (n=33)	분리 (n=26)	주변화 (n=20)	*Wilk's Lambda*	*df*	단변인 *F*	사후검증 *(Scheffe)*
우울	25.71 (4.59)	24.45 (4.20)	28.65 (8.44)	25.64 (4.99)		3	2.32 †	
외로움	42.94 (7.91)	38.37 (8.71)	42.54 (6.19)	44.48 (6.08)		3	3.53 *	동화<주변화
불안	37.89 (7.82)	33.30 (7.01)	40.65(11.81)	40.37 (7.00)	.787*	3	4.38 **	동화<분리, 주변화
자존감	27.75 (3.25)	28.65 (4.63)	26.82 (3.01)	27.91 (2.62)		3	1.08	
행복감	14.82 (4.11)	17.50 (3.69)	13.22 (5.30)	14.78 (3.69)		3	4.39 **	분리<동화

†$p < .10$, *$p < .0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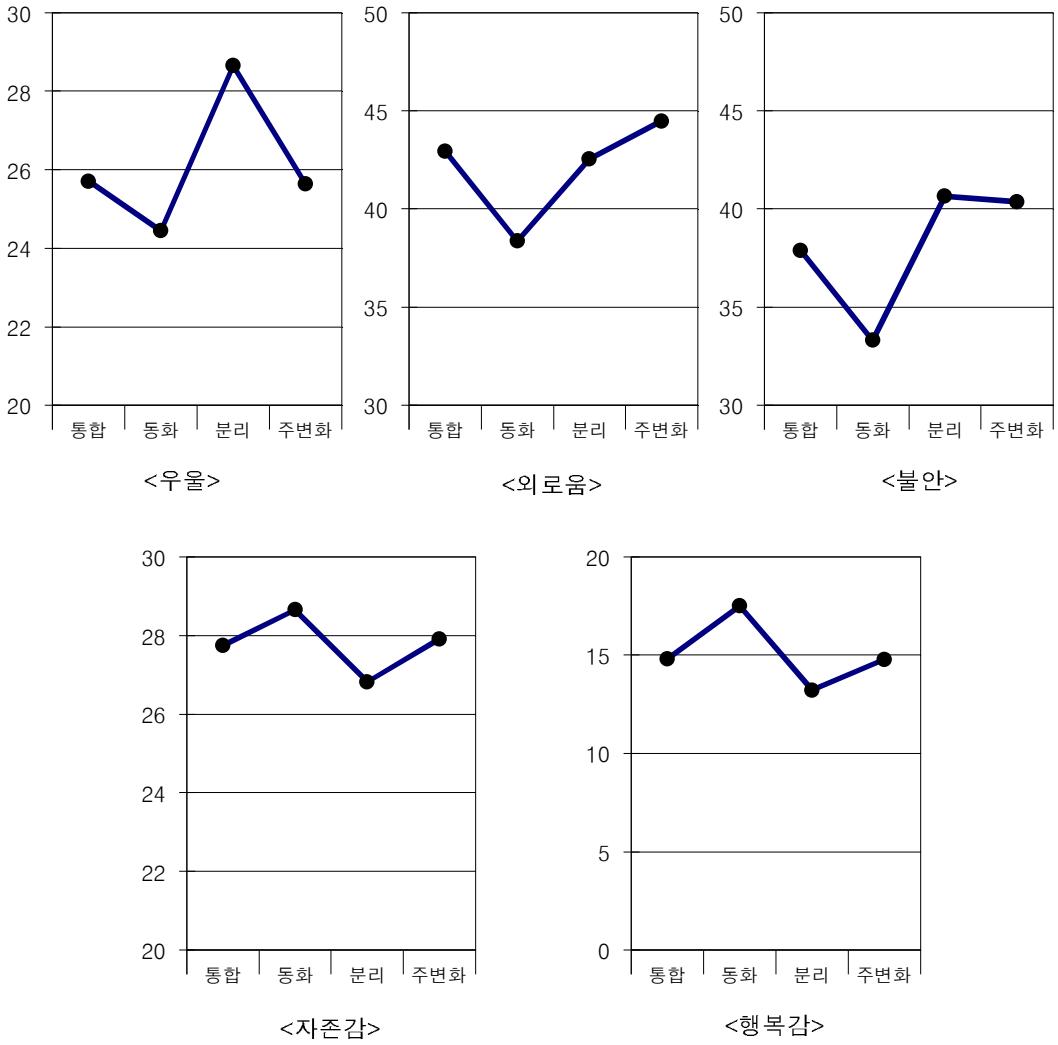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

미로운 현상이었다. 이는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사람은 중국문화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문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중국문화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 유형의 분포에서도 평균을 중심으로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주변화는 각각 37명, 33명이었던 반면 동화나 분리 유형은 26명, 2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두 문화 중 하나만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다른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는 유학생이 의도적으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종속변인 중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우울, 외로움, 불안은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긍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자존감, 행복감 역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문화적응전략의 유형에 따라 실제 적응양상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동화유형의 적응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연구자들 역시 통합 유형이 가장 좋은 적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Berry, 2005; Zheng, Sang & Wang, 2003). 추론하건대 이러한 차이점은 기존연구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임에 반해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모두 입국 1개월 이내의 유학 초기라는 특수성을 지닌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Oberg(1960, 정진경과 양계민, 2004에서 재인용)의 이론에 따르면,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이들은 일정한 단계를 겪어가기 마련인데, 첫 번째 단계는 밀월(honeymoon) 단계로 새로운 문화와 만나서 황홀, 감탄, 열정을 느끼는 시기이고, 두 번째는 위기 단계로서 좌절, 불안, 분노, 부적절함 등을 느끼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회복단계로서 위기를 해결하고 문화를 배워나가는 시기이고, 마지막은 적응단계로서 새로운 환경을 즐기고 기능적으로도 유능해지는 단계이다. 각 단계가 얼마만큼의 시기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밀월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즉, 한국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감탄, 열정을 겪고 있는 시기라면 그에 동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진 이들이 행복감을 비롯한 긍정적 정서를 가장 많이 느끼는 반면 부정적인 정서는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좌절이나 회복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면 동화전략을 택한 집단의 좌절은 더 커질 수도 있겠고, 결과적으로 통합전략을 택한 사람들의 적응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종단적인 방법을 통한 후속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현재의 결과로는 동화전략을 가진 사람들의 초기 적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나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겠다. 동화전략을 가진 학생의 적응수준이 높은 또다른 이유는 대상자들이 소속된 학교의 정책상 모두가 한국학생들과 4인 1실의 기숙사에 섞여 생활하고 있으며, 첫 학기의 모든 수업은 한국어 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이들이 한국문화에의 빠른 적응과 수용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러한 환경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으로 자국문화를 포기하고 동화되는 것이 내적인 일치감을 증가시켜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겠다.

한편, 주변화의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가장 적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어느 문화에도 속하거나 동일시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응 유형이 심리적 적응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는 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개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고위험집단인 주변화의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학생들에 대하여 간단한 적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사회적응적 맥락에서 전체학생 또는 자원자를 대상으로 '친구되기(버디)'프로그램 정도가 제공되고 있는 정도의 연구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의 학교들이 문화간(cross-cultrual) 상담의 기법이나 주의점 및

소수민족에 대한 상담절차 등을 자세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들의 적응과정 및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적응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소개된 것은 매우 드문 것이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적응 특징, 특히 문화와 관련된 심리적 적응의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와 그에 바탕을 두고 이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적응상태를 살펴보았고, 동화유형의 적응수준이 가장 높고, 주변화 유형의 적응수준이 가장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한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것과 초기 1개월의 적응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기간이 한정됨으로 인해 초기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었고 기간을 혼합한 기존의 이론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는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응양상의 변화 및 고위험 집단에의 개입 전략 등의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우 (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인적자원부 (2006). Study in Korea Project. 내부정책자료.

엄혜경 (2003). **국내 외국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 5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혁심 (2005).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36.

정진경, 양계민 (2005). 문화간 훈련의 이론과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85-215.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2002). 북한 이탈주민용 문화적응 전략 척도 개발.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2002년 동계 학술대회 논문집**. 85-94.

최재영, 신준섭 (1997). 재미 아시아계 유학생들의 스트레스 체험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 4권**. 259-292.

한국일보 (2007). 자녀 마음의 병 치료는 부모 책임. 2007. 4. 21. Koreatimes 기사(롤랜 김 투고).

허춘영 (1999).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실태: 한족, 조선족 유학생간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KAIE 정기총회 (2003). 한국국제교육자협회 정기총회. 내부회의자료.

季益富, 于欣 (1993). 自尊量表(SES)(J). 中國心理衛生雜志, 7(增刊), 93-101.

汪向東 (1993). 心理衛生平定手冊. 中國心理衛生雜志(增刊). 86-88.

張雨新, 王燕, 錢名怡. (1990). Beck抑郁量表的信度和效應. 中國心理衛生雜志 4(4),164-168.

龔耀先,劉協和 (1992). 長沙:湖南地圖出版社, 1-80.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2nd. ed.)* (pp.291 – -326). Boston: Allyn & Bacon

Berry, J. W., Kim, U., Power, S., Yuong, M.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8*(2). 185-206.

Davis, C., Katzman, M. A. (1997). Perfection as acculturation: psychological correelates of eating problems in Chinese male and female student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5*(1), 65-70.

Galchenko, I., Vijver, F. (2007). The role of perceived cultural distance in the acculturation of exchange students in Russ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 181-197.

Jou, Y. H., Fukada, H. (1996). The causes and influence of transitional stress among Chinese students in Japa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4). 501-509.

Kashima, E. S., Loh, E. (2006).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Effects of international, conational, and local ties and need for clu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 471-485.

Kozma, A., Stones, M. J. (1980). The measurement of happiness: Development of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Happiness Scale (MUNSH), *Journal of Gerontology 35*, 906-912.

LaFromboise, T., Coleman, H. L. K.,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 395-412.

Lazarus, R.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e, J., Koeske, G. F., Sales, E. (2004). Social support buffering of acculturative stress: a study of mental health symptoms among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8.* 399-414.

Li, A., Gasser, M. B. (2005). Predicting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sociocultural adjustment: A test of two mediation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561-576

Mak, A. (2000). Extending social skills for success in international education: the EXCELL program. *International Education-ej 4(2).* available http://www.canberra.edu.au/ educatioon/ crie/ 2000-2001\ieej4

Mak, A., Buckingham, K. (2007). Beyond communication courses: Are there benefits in adding skills-based EXCELL™ sociocultural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 277-291.

Mallinckrodt, B., Leong, F. T. L. (1992).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71-78.

Mori, S. (2000).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conc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2). 137-144.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Poyrazli, S., Lopez, M.. D. (2007). An exploratory study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omesickness: a comparis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American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1*(3), 263-280.

Redfield, R., Linton, R.,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ssel, D., Peplau, L. A.,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Sandu, D. S. (2005). An examination of the psychological needs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17*(4). 229-239.

Spielberger, C. D., Gorsuch, R. L.,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 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Thomson, G., Rosenthal, D., Russel, J. (2006). *Cultural stres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at an Australian university*. paper presented at Australian Internatinal Education Conference 2006.

Tseng, W. (2002). 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ies for well-being. *College Student Journal, 4.* 591-597.

Ward, C. (2001). Coping with cross-cultural transi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5).* 636-642.

Ward, C., Kennedy, A. (1993).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A Comparison of Secondary Students Overseas and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8*: 129-147.

Zheng, X., Berry, J. W. (1991). Psychological Adaptation of Chinese Sojourner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ume 26, Issue 4.* 451-470.

Zheng, X., Sang, D., Wang, L. (2004). Accultur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hinese Students in Austral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57-72.

원고접수일 : 2008. 5. 31.
게재결정일 : 2008. 7. 11.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8, Vol. 5, No. 2, 159-173

Chinese Student's Early Psychological Adaptation according to their Acculturation Type

Wonyoung Song
Dept. Counseling & Psychotherapy

Nan Li
Konyang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of psychological adaptation of Chinese student studying in Korea according to their acculturation strategy. To this aim, 116 Chinese student who come to Korea in last 1 month completed scales related with acculturation strategy(acculturation, assimilation, isolation, marginalization), depression, anxiety, loneliness, and happine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ssimilation type showed low loneliness, anxiety, and high happiness. However, marginalization type showed most maladaptive aspect. It suggests that assimilation strategy is most useful to foreign student's adaptation in early stag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Chinese student, Assimil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